# 시대별 '한국적 디자인' 논의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A study of the formation & transition 'Korean design style' by period.**

김종균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Kim, Jong-Kyun
Faculty of Design, S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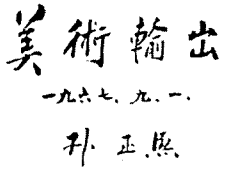
• Key words: Korean style, Cultural Identity, Orientalism.

## 1. 서 론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한국의 조형문화는 건국이래 변화의 총량과 견줄 만큼 많은 변화를 보였다. 근대화의 열망과 더불어, 짧은 시간동안 성공적인 산업사회 건설과 경제적 부를 쌓은 반면, 조형문화에 있어서 근대주의와 더불어 도입된 모더니즘 양식의 범람으로 전통조형양식들이 사장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민족주의적 성향,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과거 조선후기 사회로의 회귀, 고유문화에 대한 집착 등과 같은 수구적 노력, 혹은 자문화우월주의 이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리엔탈리즘적 낭만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모더니즘 조형언어에 전통적 소재의 접목이라는 독특한 절충주의 양식, 'Korean design style'이 이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디자인' 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짚어보고, 그 문제점을 짚어 현대 한국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융성한 문화적 전통을 현대에 꽃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 냉전적, 서구 사대적 사고방식, 독재시대의 문화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디자인사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경제전쟁, 혹은 문화전쟁으로 일컬어지는 현대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한국의 문화정체성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수구적 회귀로의 '한국적 스타일'이 아니라, 세계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인류적 보편성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 2. 한국 디자인의 형성




한국사회에 근대적 개념의 산업디자인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으로, 미군정이 서울대학교 내에 미술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도안'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 국무성의 지원과 미국 교육과정 수학을 통한 교수진양성과 교육시스템 도입, 친미적 정권, 미국에 대한 국민적 호의로 '미제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미국에 대한 문물수용이 왕성하였다. 60년대 군부가 경제개발 정책과 근대화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화 표본으로 서구산업모델을 수용함으로써 급속한 서구화가 진행되었고, 디자인도 산업의 맥락속에서 수용되고 발전되었다. 산업디자인은 그 초창기 수용부터가 산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정부주도의 디자인 진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디자인 조형언어에서는 미국식의 조형사조가 계속적으로 도입되었고, 당시 산업계의 현실인 모방과 OEM 등과 같은 수출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제품과 패키지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이후 대중사회의 도래와, 신군부의 대중문화 시장개방, 시장개방압력, 국제대회 유치 등의 계기를 통하여 변화를 가져왔는데, 디자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산업적 가치의 제고, 자생적 문화담론의 등장과 대중문화산업으로서의 디자인의 모습이 형성되고, 세계속에서 한국의 차별성을 구가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디자인 전개가 이루어지지만, 조형양식에 있어서는 모더니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디자인계는 또 한번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 냉전체제 종식과 함께 전세계 자본주의 통합과 지역블럭화, 유통시장 개방과 저작권, 지적재산권 강화, OECD 가입과 보호무역 철폐 등의 외부적 압력으로 생존차원에서의 디자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디자인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게 된다. 서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조의 조형언어가 소개되고, 제3세계, 지역문화, 전통문화 등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지며 다원화된 디자인 양상이 전개되게 된다. 또 외환위기를 맞아 신지식사업으로의 디자인 육성과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며, IT에 기반한 디지털 디자인의 영역 출현, 한류열풍에 동반한 대중문화의 자신감 형성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체계를 공고히 형성하게 된다.

## 3. '한국적 디자인'의 형성과 변천

한국사회의 서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문화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고 점차적으로 증대되었다. 디자인계에서도 한국적 조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각 시대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나게 된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색', '조선취미', '향토색'등과 같은 형태로 이국적 취향을 나타내는 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5-60년대에는 수공예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졌다. 3공화국에 접어들어서는 결여된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정통성 회복 노력이 기울여졌는데, 전통요소를 모사함으로써 '유형화', '획일화'된 모사적 전통주의와, 유적복원과 거대축조물의 건설 등의 권위적 민족주의가 유행하였다. 8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의 성공과 대형국제행사 유치, 대중사회의 도래, 우민화 정책의 영향 등으로 대중문화시장의 개방과 소비성향의 저속한 상업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시기 한국적 디자인의 대안은 70년대 모사의 방식과 전통소재의 모던 스타일화, 관광상품을 위한 복제품 등 전통적 소재를 통한 키치의 생산과, 도안, 양식화를 통한 전통소재의 모더니즘 해석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오방색, 단청무늬, 전통문양, 전통소재 발굴 등으로 이어졌으며, 전통문화의 저속화와 상업화를 불러왔고, 90년대 초

반 문화산업론이 대두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90년대 초반, 문민정부 시기에 국제화와 세계화 흐름과 시장개방을 통하여 산업계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요구되었고, 디자인계에서는 전통문화논의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거대자본과 다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한 차별화의 일환으로 전통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써 한국문화의 접목이 일어나는데, 이는 외국기업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 Originality의 획득이라는 현실적 요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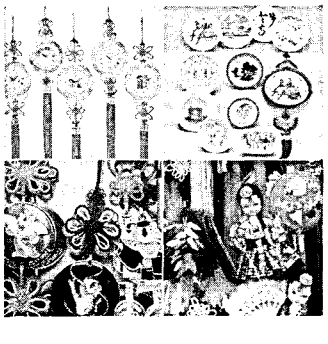
| 구분 | 기간 | 표출방식 | 특징 | 비고 |
|---|---|---|---|---|
| 일제시대 | 19-44 | 문화주의적 향토색, 조선색, 조선취미 | 문화주의영향의 이국적 취향. | 선전, 소재주의 |
| 미군정 1-2공 | 45-60 | 수공예산업 부흥 **Souvenir,** 관광상품 | 관제홍보용 수출증진을 위한 산업공예의 진흥 | ICA 수출품 |
| 3-4공 | 61-80 |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 수출증대를 위한 도안과 의장, 정통성 강조를 위한 전통요소모사 정부주도 정책위주의 획일화, 유형화 | 정부주도 정책중심 유형화 획일화 |
| 5공 | 81-87 | 대중문화 발달 유화정책, 우민화정책 | 세계속에서 한국 고유성에 대한 관심. 소비성향, 저속화와 키치(kitsch) 민족주의 부각과 전통적 소재 유행. | 대중문화와 대중문화산업 발달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
| 6공 | 88-92 | 탈냉전 상업화 | 근대화의 자성과 전통문화에의 주목 정신적 가치에의 주목 | |
| 문민정부 | 93-98 | 세계화, 문화산업논리 | 세계화논의 속의 문화산업논리 대두 산업경쟁력으로서의 민족문화, 디자인경쟁력. | UR 세계화, 문화산업화론 |
| 국민의 정부~ | 98- | 지식정보기반 고부가가치 사업 | 컨텐츠로서의 문화산업, 오리지낼리티의 확보로서 디자인 | 정보지식기반사업 |

시기별 디자인 문화정체성 표출방식

## 4. '한국적 디자인'논의의 문제점

한국의 현대 문화 변천사, 좁게는 조형문화 변천사는 근대주의와 민족주의 갈등의 축소판이다. 근대주의가 시대사적 과제였다면, 민족주의는 역사적 과제였다. 디자인계의 문화정체성 논의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감정과 당위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정체되어 있다. 근현대 디자인의 발전사와 무관하게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각기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다른 궤적을 그리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형상이다.

문화적 디자인, 혹은 한국적 디자인의 현실적 표현양상은 각기 시대와 주변의 상황에 따라 각기 그 성격을 달리하며 변화되어 왔으며, 현대에 있어서도 그 성격을 달리하며 계속적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그 접근 방법의 전근대성은 지속되어 미학적, 철학적 접근방법, 관료적 속성과 계몽주의적



엘리티즘 타성의 지속, 서구적 인식틀을 통한 한국문화의 재단, 미국 디자인 문화의 지속적인 수혈 등의 근본적인 시각을 변화시키지 못한 체, 전통주의, 원형주의, 문화주의의 틀에 갇혀 있다.

그러한 원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주의적 타성(오리엔탈리즘, 식민주의)
2. 미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모호한 정체성 규명
3. 전통주의, 역사주의, 원형주의, 복고주의 등 수구적 경향
4. 산업논리와 디자인 국부론
5. 디자인계의 관료화

한국의 현대 디자인양상이 외연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이루어 세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주체적 의지가 부족하여 계속적인 문화적 속국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된 한국의 현대의 모습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번영과 문화적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변화된 한국사회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을 통한 문화정체성의 확립과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류적 보편성에 바탕한 신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 5. 결 론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역사란 "아(俄)와 비아(非俄)와의 투쟁(鬪爭)"이라 하였다. 한국 근현대 디자인 · 조형문화 변천사는 근대주의와 민족주의의 갈등의 역사이며, 더 깊게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의 역사이다. 단지 시대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변화된 것일 뿐이지, 결코 그 본질적인 갈등의 구조가 변화된 것은 아니다.

| | 근대주의 (식민주의) | 민족주의 |
|---|---|---|
| 일제강점기 | 산업화와 문화주의 | 조선취미, 조선색, 향토색 (조선미술전람회) |
| 45-60년 | 수공예산업 부흥 **Souvenir,** 관광상품 | - |
| 6-70년 | 조국 근대화, 새마을 운동,자발적 서구화(상공미전) | 민족문화 창달 전통계승, 전통문화계발 (모사,유형화된 전통조형) |
| 8-90년 | 세계화 (굿디자인전) | 민족문화론 (산업디자인 전람회, 키취화) |
| 2000- | 디자인의 세계화, 선진화 | 한국적 디자인, 문화적 디자인 |

디자인계 문화정체성 논의 종합

자발적인 서구화와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시대사적 갈등을 겪어온 한국의 문화사에 있어서 문화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예민하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다. E.H 카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규명하였다. 역사는 현재의 시각에서 어제와 오늘을 평가하며, 내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한국의 역사해석방법은 민족주의적 시각을 넘어서서 새롭게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역사관을 형성하여야 하며, 역으로 새로운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해석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국사학자 이기백 교수의 말처럼 "한국의 전통문화도 닫힌 공간이 아닌 열려진 국제교류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논의도 닫힌 공간이 아닌 열려진 국제교류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시대사적 요구이다.

**참고문헌** - 지면관계상 생략